

1990 年代의 環境政策方向과 課題

金 亨 徹*

■—————》 차 례 《—————■

- | | |
|------------------------|--------------|
| I. 1990 年代의 意義 | 1. 解決해야 할 課題 |
| II. 1990 年代의 環境行政推進與件 | 2. 다가오는 難題들 |
| III. 1990 年代의 環境政策方向 | 3. 主要施策 |
| IV. 1990 年代 環境課題와 主要施策 | V. 맺 는 말 |

I. 1990 年代의 意義

國內外的으로 복잡했던 80 年代를 마무리하고 90 年代를 시작하는 첫해를 맞이하였다.

90 년대는 2 천년대, 즉 21 世紀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어떤 개인이나 集團에게나 마찬가지로 남다른 所望과 祈求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分斷에서 統一을 成就하는 所望을 기대하는 시기이며, 經濟의 지속적 成長으로 先進國軌道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이며, 均衡開發과 經濟正義의 실현을 所願하는 時期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環境面에서는 深化된 汚染과 環境破壞에서부터 탈피하여 명실공히 福祉國家에 걸맞는 環境을 이룩하는 希望의 年代라고 하겠다.

그런 뜻에서 處로 昇格한 環境處는 그 첫해이며 90 年代를 시작하는 올해를 “環境保全 元年”으로 삼아 획기적인 環境보전여건을 造成, 所望을 현실화하고자 자세를 바로잡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 環境處 企劃管理室長

6 環境法研究

확실히 90年代는 希望의 年代이다. 그런데 여건을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環境汚染으로 인한 위기와 그 해소의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는 현실을 감지하게 된다.

危機側面은 그동안 우리 나라의 汚染發生始點이 60年代初부터의 産業化와 都市化, 그리고 70年代의 重化學工業推進의 本格化에서부터 30~40년이 지나는 때가 바로 90年代이고,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根本的이고 源泉的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결과 증대한 環境事故내지 被害의 大型化가 90年代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美國이나 日本의 예로 보건대, 대체로 重化學工業이나 石油化學工業 등에 따르는 産業廢棄物이나 毒性物質에 의한 環境上的 심각한 危害가 40餘年을 지나면서 顯在化하였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環境危機의 解消可能性側面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環境問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일반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高揚되었고, 企業體의 공해방지에 관한 가치관도 팔목할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政府의 환경보전 의지도 확고해졌다.

勞使問題보다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消費者團體와 女性團體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환경보전 캠페인 그리고 공해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최대의 금기로 여기고 그 결과 防止施設稼動에 갖는 企業主의 關心高潮를 위시한 企業의 姿勢變化라든지 公害防止投資弘報를 製品廣告에 못지 않게 신경쓰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 적은 政府를 지향하면서도 環境行政專擔中央機構로서 大幅的인 機構·人力擴充과 아울러 이루어진 環境處로의 승격, 그리고 交通難 해소 및 科學技術의 진흥과 더불어 環境保全을 重點投資分野로 설정하고 있는 政府의 姿勢 등이 그 예로서 80年代初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環境危機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環

境惡化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90年代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課題라고 하겠으며 90年代가 갖는 環境政策上的 의의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II. 1990年代의 環境行政推進與件

全世界는 지금 90年代를 맞이하면서 국제경제 및 국제정치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80년대말의 독일과 東歐圈의 변화가 예고하듯이 思想과 理念의 대립과 갈등은 퇴색하면서 새로운 東西和合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反動이 새로운 帝國主義的 모습으로 經濟·軍事面에서 尖銳한 對立과 紛爭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이른바 環太平洋時代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것이다.

國內의으로도 與小野大의 政治圈構圖에서 與大野小의 三黨統合을 이루는가 하면 地自制實施와 연계하여 政治秩序의 安定을 추구하는 整地作業이 한창이고, 經濟正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시도가 勞使對立에서 勞使共存의 時代로 移行하는 흐름속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욕구를 수렴하는데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中央과 地方間, 地方相互間의 均衡開發과 通商多邊化에 따라 이른바 “西海岸時代”가 말해주듯이 새로운 經濟패턴의 場을 떠나가고 있다.

環境分野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地球村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89年 타임誌가 “危機에 처한 地球(The Endangered Earth)”를 '89年の 人物로 선정 한바 있듯이 지구환경의 위기가 人類의 지대한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1972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人間環境會議 이후 全世界의 識者는 환경문제에 관한 경중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各國의 共同努力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개선되기는 커녕 惡化一路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존層의 破壞, 탄산가스증가로 인한 기온상승과 氣象異變, 그리고 黃酸化物과 窒素酸

8 環境法研究

化物이 大氣 중에 增加됨으로 인한 酸性비의 被害가 地球村의 共同協力을 통한 解決을 渴望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地球의 破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美國은 自國內의 약 40年間 放棄되다시피한 有害産業廢棄物로 인한 危害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Super Fund(16億弗)를 마련하여 産業廢棄物의 處理를 시도하였는가 하면, 부시 大統領 當選者는 就任에 앞서 캐나다를 訪問, 美國과 캐나다간의 현안문제였던 酸性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兩國간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길을 마련하였고 취임후에는 軍備縮小와 環境投資增額을 내용으로 하는 豫算改編을 행하는 한편 90년에는 世界環境頂上會議를 美國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世界環境問題解決에 各國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UN 演說('89)에서 美國과 蘇聯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발견하게 된 共同的 敵은 바로 지구환경의 오염이고, 군비 축소와 지구환경위협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국제경제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설파하였으며, 日本의 다케시다 首相은 “世界에 貢獻하는 日本”을 표방하면서 地球環境問題解決에 기여할 것을 自任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英國도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를 몬트리올회의에서 정한 것보다 앞당겨 使用禁止하겠다고 하였고 89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G-7會議에서도 환경문제를 주요의제로 하였고, 오늘날 各國名士의 모임에서는 環境問題에 대한 식견이 없이는 대화의 상대를 갖지 못할 형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內적으로 1989년의 환경의 날에는 大統領이 環境保全의 重要性에 관한 談話를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日常生活에서 環境汚染을 자제할 것을 역설한 바 있으며 물문제의 해결을 6共和國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였고, 環境處의 昇格·擴大와 더불어 금년에는 歲計잉여금의 相當部分을 環境改善에 投入토록 하고, 1991年度 豫算編成에 있어서는 環境保全事業을 主要投資分野로 명시하는 등 民主化의 열기만큼이나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욕구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關心과 慾求가 이렇게 高潮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환경실상은 적잖은 惡化趨勢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世界保健機構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北京, 天津, 멕시코市 다음으로 大氣汚染이 심한 국제도시라고 발표된 바 있고, 우리의 測定結果 1989년 上半期에는 漢江下流 加陽地點에서 시안이 檢出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적잖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우선 下水處理率이 80年初의 8%에서 현재에는 28%로 제고되었고, 분뇨처리장도 확충하여 收去되는 분뇨의 90%가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淸淨燃料인 LNG(액화천연가스)를 서울지역에 공급하고 승용차는 저공해자동차를 생산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대책이 규모면에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期待를 갖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다 많은 努力과 投資를 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명심하여야겠다.

Ⅲ. 1990年代의 環境政策方向

먼저 1990년대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持續的 成長으로 先進國軌道에 진입하게 되고 經濟正義의 실현으로 社會的 衡平性이 제고되며 地域均衡開發로 都農間·地域間的 격차를 해소하여 民主·繁榮·統一을 성취해야 하는 希望의 연대라고 하겠다.

환경행정여건을 살펴본다면 밝은 면도 있지만 汚染現象이 더욱 가속화·광역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는 산업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토지이용이 확대되며, 에너지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할 뿐더러 消費生活도 역시 더욱 다양화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여건을 요약해본다면 우리는 經濟發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이에 맞는 環境을 이룩하는, 즉 兩者의 調和를 도모하는 施策을 추진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의 경제는 매년 7~8%의 성장을 지속해야만 每年 새로이 배출되는 就業對象人口를 社會的으로 건전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경제적 과제라 하겠고, 이를 도의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와 대등한 과제로서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여건이라 할 것이다.

이런 안목에서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成長潛在力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環境保全은 成長潛在力인 공기와 물 그리고 勞動力 등을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經濟發展을 이룩하는데 기여한다.

즉 環境保全을 통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기름진 자연자원 및 토양과 海洋을 잘 가꾸어 이를 良質의 生産要素로 활용하는 것은 製品의 市場競爭力을 향상시키고, 환경이 쾌적해질수록 醫療費 등 社會費用의 支出도 줄이는 한편, 나아가서 汚染防止施設費와 원상회복을 위한 투자 등 國家全體의 재정부담도 감소된다.

이렇게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低公害 내지 無公害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데에 環境施策의 主眼點을 두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低公害 내지 無公害技術은 현재로서는 限界가 있으므로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겠으나 이를 개발하는데에 치중하는 한편,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多消費型임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기업은 저公害 내지 무公害기술을 개발·적용하는데에 그의 미래를 걸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環境關聯業務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綜合調整機能을 強化하는 한편, 현재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環境基礎施設을 확충하기 위한 投資를 대폭 확대하고, 汚染監視活動도 더욱 積極化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국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企業은 환경투자가 생산비의 당연한 일부라는 기업윤리를 확고히 하고 防止施設의 설치와 그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발생하는 廢棄物이 곧 원료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그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발생된 폐기물은 곧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低公害 내지 無公害技術의 적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國民들도 日常生活에서 消費를 절약함으로써 汚染을 최소화하는 한편, 오염감시의 主體라는 의식을 가지고 環境의 파수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政府·企業·國民의 三位一體的인 協力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우리 환경은 쾌적해 질 수 있는 것이다.

IV. 1990年代의 環境課題와 主要施策

위에서 설명한 시책의 방향은 곧 우리가 안고 있는 해결되어야 할 課題를 생각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課題와 조만간 닦쳐올 環境상의 難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시책을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解決해야 할 課題

(1) 上水源의 汚染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上水源汚染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라 하겠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약 600개소의 上水源(간이상수원은 제외)이 있으며 이중 46%는 댐과 중요하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오염은 음료수의 飲用可能與否 내지 그 水質과 직결되어 있다. 淨水후의 管網이나 물탱크의 부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한없이 확대되겠지만 환경면

에서 上水源汚染은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이다.

上水源汚染의 원인은 가정하수·공장폐수·축산폐수·농업배수 등 다양하다. 특히 八堂·大清湖와 같은 광역상수원은 國民의 거의 절반이 利用하는 上水源으로서 아주 잘 保全되어야 할 것인데도,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大都市가 인접해 있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오염이 가중되고, 養殖漁業에 적합한 水溫을 유지하는 湖沼에는 가두리양식장이 번창해서 汚染을 加速化하고 있다.

(2) 河川의 汚染

全國의 거의 모든 하천은 다 오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맑은 강이나 시냇물을 보기 어렵다.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河川은 도시의 生活下水와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어 있고, 農村이나 都市주변위락지는 生活쓰레기와 畜産폐기물로 惡臭가 날 정도로 심하게 汚染되어 있으며, 工團이나 大型工場의 隣近河川은 工場廢水로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다. 또한 鑛山地域이나 非鐵金屬工團을 흐르는 河川은 人體에 有害한 重金屬도 檢出된다. 비록 농도면에서 아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生物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人體에 축적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3) 都市大氣의 惡化

人口가 밀집한 都市치고 맑은 공기를 느끼기에는 과연 1년에 며칠이나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化學工業이 추가되는 工團 등에는 특수한 大氣汚染物質로 인해서 農作物이나 人體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都市大氣汚染은 주로 全家口의 8割이 사용하는 煉炭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와 먼지, 일산화탄소 그리고 벙커C油 등에서 발생하는 汚染物質, 매 4년마다 倍로 늘어나는 自動車, 그중에서도 특히 버스와 大型트럭 등 디젤自動車の 煤煙이 主要因이 된다.

우리 나라는 輕油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유율이 현재 46%로서 美國의 8%, 日本의 1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煤煙

은 도심의 大氣汚染을 加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輕油自動車에 대한 煤煙가스低減대책이나 그 使用抑制政策이 都市의 大氣保全側面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된다.

(4) 넘치는 쓰레기

우리나라는 1人當 하루에 약 2kg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다. 日本의 1.3kg이나 美國의 0.8kg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주로 煉炭재와 음식물 찌꺼기가 주된 것인데 日本의 “裕足한 집에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俗諺을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전부를 埋立處理하고 있다. 再活用이나 燒却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의 무시될 정도이며(산업폐기물의 再活用은 상당히 이루어짐) 埋立되는 것도 非衛生的인 埋立投棄(Dumping)가 대부분이고 住民들은 매립지의 隣近地域設置를 한사코 反對하기 때문에 좁은 國土에서 埋立地의 確保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埋立量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소각방식을 확대하거나 재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燒却施設도 부족하고 住民들의 分離收去體制도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그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5) 有害産業廢棄物 管理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4만 5천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약 2천톤은 特定有害産業廢棄物이다.

그동안 산업폐기물 중 一般産業廢棄物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대부분 매립하는 편법을 썼고, 特定有害産業廢棄物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대부분 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자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그 처리가 과연 제대로 되어 왔는지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처리하기에 어려운 廢棄物을 시설이나 능력이 뛰어나지도 못한 업자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잦았고, 무단투기와 불법처리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는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또한 70년대부터 重化學工業이 本格化되었지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유해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은 아직 많은 虛點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美·日·歐洲各國이 경험하였던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크게 염려되고 있다.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늦기전에 지금까지의 처리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겠다.

2. 다가오는 難題들

위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잘 알려진 문제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騒音·有毒物·海洋과 土壤의 汚染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닥아오고 있는 難題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大氣 중의 重金屬과 微量汚染物質

生活樣式이 다양화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전혀 도외시하였던 오염물질이 주요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카드뮴·납·수은과 같은 물질이 대기중에 증가하고 있는데, 납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有鉛揮發油와 産業施設에서, 카드뮴은 주로 수입하는 연료나 제련공정에서, 水銀은 산업체에서 배출된다. 유연휘발유자동차는 점차 그 숫자가 감소되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겠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水綿·PCB·PCP와 같은 물질에 의한 인체피해, 放射能·라돈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점차 큰 과제가 될 것임을 유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酸性비

북구와 영국·독일 그리고 캐나다와 美國간의 산성비피해로 인한 분류는 목은 과제가 되고 있지만, 酸性비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큰 과제가 되

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지리적 조건이 중국대륙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우리로서는 中國의 공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영향도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北韓의 工業化와 隣接國家間的 빈번한 왕래에 따라 상호간에 이에 관한 협의와 해결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건대, 中國은 自國產 고유황연료를 아무런 정화조치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적잖은 酸性을 띤 비가 한반도에 내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河川의 중금속오염

아직은 뚜렷한 징후가 없으나, 1989년에 漢江下流에서 중금속에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장래의 하천의 중금속오염을 예고하는 것 같아 不安感을 떨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더 진전된다면 河川水를 이용한 農作物栽培뿐만 아니라 물의 利用 자체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철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심지어는 淨水場에까지 중금속처리시설을 갖추어 음용수에 중금속이 混入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4) 有毒物管理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化學物質들이 우리주변에 범람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1萬여종 이상의 合成化學物質이 流通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日本은 3만여종, 미국은 6萬여종이나 된다고 하며, 국제기구에서는 여기에 매년 300~500여종의 새로운 合成化學物質이 새로이 개발되어 종류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이러한 合成化學物質의 증가가 급속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여기에는 상당한 有毒物質도 포함될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이에 관하여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5) 西海岸時代와 黃海汚染

인접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추진되면서 우리 나라는 西海岸開發을 本格化하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동안 국제정세의 변화가 가속적으로 西海岸開發代를 앞당기고 있다.

더욱이 中國은 黃海에 面한 主要都市를 중심으로 工業화를 서두르고 있고 북한도 東浦港 등 黃海沿岸을 개발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工業화에 힘쓰고 있다.

黃海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淸江해안으로서 한반도의 거의 모든 河川이 黃海로 流入하고 있으며, 수심이 平均 40 m 정도밖에 되지 않는 淺海로서 라아스式 해안구조로 되어 있어 生態系의 豊富性이 세계 8대 代表海域의 하나인데 특히 온대지방에 위치한 곳으로는 黃海가 그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黃海의 健全한 保全은 우리 나라의 環境보전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의 가속화가 무분별하게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生態界寶庫가 덧없이 황폐해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西海岸開發의 전제로서 黃海汚染을 예방하는데에 힘을 모아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전에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위치선정과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함은 물론, 環境影響評價를 거쳐 오염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主要施策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環境문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環境상의 문제가 다가올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施策을 펴온 것이 사실이지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局地的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19년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시책을 좀더 과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이 力點을 두어야 할 몇 가지만을 간추리고자 한다.

(1) 地球次元의 環境保全 協力

오존層的 파괴,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地球氣溫上昇과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는 범세계적인 협력노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地球村의 一員인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됨은 물론이거니와 종국적으로는 生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간에 많은 利害가 얽혀있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는 각종 情報에 예민하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專門家를 통한 分析을 거쳐 우리의 입장을 현명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간에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등에 駐在官을 常駐시키는 방안과 海外에 진출한 우리 企業體와 機關의 정보를 相互利用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國內誘致와 각종 국제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 隣接國家間的 協力

中國의 공업화와 우리의 西海岸開發 등은 황해의 오염과 한반도의 酸性降雨 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南北韓간의 정치적·군사적 對立은 환경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의 轉機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思想이나 이념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차적인 수확도 감안한다면 환경분야를 통한 隣接國家와의 協力は 90년대에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國交 수립이전에 이러한 協力は 可能的 것이므로 학자나 전문가 그리고 NGO(非政府組織)을 先導로 協력이 이루어 지도록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3) 環境科學技術의 개발과 政策發掘

低公害 내지 無公害技術의 도입과 개발은 성장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요체이다. 따라서 환경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에 投資를 확충해야 하며, 기술과학과 환경인문과학이 연계될 수 있도록 研究機關을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1990 년대에 시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環境政策開發을 위한 정부투자연구기관의 설립이 바람직스럽다.

민간분야의 환경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예를 들면 환경행정 기능배분의 조정, 稅制의 補完, 특별회계제도개발,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금조성방안의 설정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방지사업비용부담제도의 定型化 등은 환경행정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케 하고 이를 국가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環境基準 등의 재검토

각종의 環境基準과 規制基準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장래를 내다보면서 기업체 등이 미리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국이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현실과 장래 계획에 적합한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의 基準은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90 년대에는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濃度規制基準에서 점차적으로 量的規制基準을 援用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른바 危害性評價(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기준을 검토하고 재정립하는 한편 汚染警報시스템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環境弘報·教育의 강화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강조했듯이 정부·기업·국민이 三位一體的인 協力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科學化되어야 한다. 특히 홍보제도는 정부주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이 바람직하다.

또한 環境教育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교육기회가 확대되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하는 한편, 학교환경교육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教材開發과 병행하여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V. 맺는 말

그동안 우리는 환경보전을 이룩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크게 개선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이 기간 중에 우리는 무엇인가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政府는 금년을 「環境保全 元年」으로 하였다.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